

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

- 5. 19.(월) ~ 6. 5.(목), 5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,500개소 이상 점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19일(월)부터 6월 5일(목)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'민·관 합동 점검반'이 5개 수산물*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.

* 활참돔, 낙지, 주꾸미, 활가리비, 오징어

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금어기,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”이라며, “수산물 소비 동향,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 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거영 (044-200-5940)
		담당자	사무관	윤복근 (044-200-5414)
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종모 (051-400-5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덕균 (051-400-5795)